

KIA에 다시 부는 ‘도니살’ 바람

도현아 니멤시 살아야

윤도현, 주전 공백 메운 타격감

선발 8경기 만에 4홈런 터뜨려
만루 등 득점권 타율 4할 넘어
김도영과 입단 동기…부상 시름
“과감하게 경기에 임할 것” 각오



KIA 타이거즈가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윤도현(22)의 폭발적인 타격이 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슈퍼스타 김도영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도니살’ (도영아 니멤시 살아야)이, 윤도현을 지칭하는 새로운 ‘도니살’ (도현아 니멤시 살아야)이 될 정도로 그는 엄청난 타격감을 보여주며 팀의 중요한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22일 콜업된 윤도현은 선발 출전 8경기만에 강한 타격을 보여주며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의 타격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과를 올리며 주전 공백을 채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일 오전 기준 19경기에서 타율 0.385(67타수 26안타), 17타점, 15득점을 기록하며 팀 타격을 이끌고 있다. 특히 지난 1일

KT와의 원정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때리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그는 최근 선발 출전한 8경기에서 0.464(28타석 13안타)의 타율로 무서운 타격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윤도현은 광주일고 시절부터 간판 타자로 주목받는 신인이었다. 2022년 신인드래프트에서 2차 2번으로 지명 받아 김도영과 동기인 그는 같은해 시범경기에 출전해 뜬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돌해 오른손 중수골 골절을 입어 시즌을 조기 마감해야 했다. 2023년에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1경기 1타석 출전에 만족해야 했고 지난 시즌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연습 경기에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또다시 부상에 발목을 잡혀야 했다. 어느새 입단 4년차를 맞았고 올해 스프링캠프에서도 부상 없이 좋은 모습을 보였으나 이번엔 송구입스(잘 하던 동작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현상)가 찾아왔다. 끝내 올 시즌도 2군에서 시작했고 그마저도 경기 도중 오른쪽 팔꿈치에 공을 맞고 재활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던 중 1군의 주전들이 부상으로 대거 이탈하면서 그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입단 동기 김도영도 그에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진짜 잘해야 한다”고 조언하기

도 했다.

남다른 각오를 다진 윤도현은 데뷔 이래 가장 많은 타석을 1군에서 소화하고 있다. 심지어 1.224의 OPS(출루율+장타율)와 함께 득점권 상황 0.400의 타율, 만루 상황에는 0.500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의 타격은 단순히 안타를 치는 것을 넘어서,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몰오른 타격감은 상대 투수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KIA 타이거즈가 어려운 시기에도 전반적인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윤도현은 앞으로 과감한 플레이를 하면서도 부상 없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다. 그동안 잦은 부상을 겪고 재활을 경험하면서 더 강해졌고 과거보다 스트레칭과 웨이트 운동량도 더 늘렸다.

윤도현은 “최형우 선배가 다쳤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하면 더 다치고 좋은 플레이도 안 나온다고 조언해줬고 저 역시 과감하게 경기에 임할 생각이다”면서 “다친 선수들이 돌아올때 까지만이 아니라 그 선수들이 돌아와도 현재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제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KIA타이거즈 윤도현이 지난달 28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기아 히어로즈와의 홈 경기에서 안타를 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KIA, 10일부터 삼성과 ‘달빛시리즈’ 개최

광주-대구 상징 특별이벤트 합동 사인회 등 다채로운 행사

KIA 타이거즈가 오는 10일부터 12일 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3연전을 ‘달빛시리즈’로 치른다.

‘달빛시리즈’는 광주를 상징하는 ‘빛’과 대구를 상징하는 ‘달구벌’을 합쳐 만든 것으로, 작년 7월에 이어 올해에도 양 팀 간의 특별 이벤트가 성사됐다.

우선 ‘달빛시리즈’를 맞아 3연전의 첫 날인 10일, KIA 타이거즈 포수 김태균과 삼성 라이온즈 투수 이호성의 합동 사인회가 경기 전에 진행된다.

시리즈가 열리는 3일간 다채로운 이벤

트도 마련됐다.

경기 전과 경기 중에는 양 팀 치어리더의 합동 공연이 진행되며, 경기 후에는 양 팀의 합동 뒤풀이 응원전이 열릴 예정이다. 관중 입장 시 게이트에서 뒤풀이 응원전 때 착용할 야광 팔찌를 팬들에게 제공한다. 5번 게이트 앞 EV스페이스에는 달빛시리즈 엠블럼 등신대가 설치된 특별 포토존도 운영된다. 또한 선수 소개 등 전광판도 합동으로 운영해 챔피언스 필드를 찾는 팬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KIA 선수단은 달빛시리즈를 기념해 10번째 우승을 차지한 2009년에 착용했던 원정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서 그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

전남도청 펜싱·우슈팀 전국대회서 맹활약

펜싱 박소형 국대 조기 확정 우슈 윤웅진·제영우 금메달

전남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과 우슈팀이 전국 규모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전남 체육의 위상을 드높였다.

4일 전라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열린 펜싱 국가대표 선발대회와 전국종별우슈선수권대회에서 펜싱의 박소형은 여자일본부 예뻐 개인전 2위에 오르며 국가대표로 조기 확정됐고, 우슈의 윤웅진·제영우는 각각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소형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펜싱 국가대표 선발대회’ 여자일본



전남도청 펜싱팀 박소형(왼쪽)과 우슈팀 윤웅진. 전남도체육회 제공



부 예뻐 개인전 2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박소형은 결승전에서는 송세라(부산시청)에 12-15로 아쉽게 패하며 준우승에 머물렀다. 하지만 박소형은 앞서 열린 첫

번째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어, 이번 대회 성적으로 잔여 선발전 결과와 관계없이 대표 자격을 획득했다.

전남도청 우슈팀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경북 김천종합스포츠타운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열린 ‘제8회 전국종별우슈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특히 플레이코치로 첫 출전한 윤웅진은 산타 -60kg급 8강전부터 결승까지 모두 2-0 완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입단 5개월 차 신예 제영우는 투로 남권 부문에서 9.44점으로 정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장민규는 태극권 부문 은메달과 태극검 부문 동메달을, 김창현은 산타 -75kg급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최동환 기자

전남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등 ‘9억9200만원’ 확보

목포대·동신대 새 팀 창단

전라남도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지원’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9억9200만원을 확보했다.

전남체육회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2025년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운영지원 사업에서 총 8개 단체 20개 팀이 선정돼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창단지원과 운영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전남은 △창단지원 2개교 2개 종목 3억9400만원 △운영지원 6개 단체 18개 팀 5억9700만원 등 총 9억9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2억9000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창단지원 분야에서는 △목포대학교 육상팀(2억5500만원) △동신대학교 태권도팀(1억3997만원)이 각각 3년간의 예산을 지원받아 팀을 새롭게 꾸린다. 대학스포츠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인재 양성의 중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영지원 분야는 전남도청,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한국전력 등 6개 단체가 다양한 종목에서 선정됐다.

전남도청은 펜싱·소프트테니스·근대5종·카누·우슈·스키 등 6종목에 9725만원, 목포시는 육상·하키 1억원, 여수시는 요트·유도·육상 1억3000만원, 순천시는 소프트테니스·양궁·유도 1억1500만원, 광양시는 육상·볼링 7000만원, 한국전력은 럭비·육상 8500만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최동환 기자

‘45도 싸움’… 홍명보호, 이라크 운명의 일전

6일 월드컵 亞 3차 예선 9차전 비기기만 해도 본선 진출 확정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운명의 일전을 앞두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6일(한국시간) 오전 3시 15분 이라크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9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조 1위(승점 16), 이라크는 3위(승점 12)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이라크전은 홍명보호에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라크를 상대로 패배만 하지 않으면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짓기 때문이다.

이번 3차 예선에서 각 조 2위까지는 월

드컵 본선에 직행하는 반면 3위와 4위는 따로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다. 한국은 승점 1점만 얻어도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다.

다만 최고 기온이 섭씨 45도에 육박하는 이라크 바스라의 무더운 날씨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경기가 열리는 당일 밤 9시에도 기온이 30도를 넘어 갈 것으로 예보되며 경기 초반 승부를 굳히지 못한다면 대표팀이 체력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이라크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 점이다. 이라크는 이번 예선 홈 경기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1차전에서 대한민국

이 3-2로 승리했으나 이라크 공격에 고전하기도 했다.

이에 중동 리그에서 뛰고 있는 권경원, 원두재(이상 코르파칸), 조유민(사르자), 박용우(알아인)은 현지 날씨에 완벽히 적응한 상태에 더해 나머지 대표팀은 현지시간으로 오후 9시에 훈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폭염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한국 선수로는 박지성 이후 17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우승의 영광을 안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우승 기운을 품고 홍명보호에 합류하면서 완전체를 이룬 홍명보호는 이라크전을 마친 뒤 곧바로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후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쿠웨이트와의 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을 준비한다.

민현기 기자